

ZOOM  
-IN

## 한국과 일본의 ISA 현황과 과제

- 우리나라는 2016년 절세를 통한 국민 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(Individual Savings Account: ISA, 이하 ISA)를 도입하였으나, 2021년 중개형 ISA 도입 전까지는 그 실적이 매우 저조
- 존폐 위기 상황에 놓인 ISA를 직접투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편 노력, 주식투자 인구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ISA 가입자수 및 가입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
- 반면 유사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일본은 개인 보유 자산을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을 목표로 개인저축계좌(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: NISA, 이하 NISA)를 도입하였으며 금융투자상품만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
- 비교적 빠르게 제도를 안착시킨 일본은 기시다 내각의 '새로운 자본주의 실현' 정책 실행을 위해 2022년 일몰을 앞둔 NISA를 영구화시켰고, 이는 일본 증시 유동성을 크게 확대
- 우리 정부도 내년 1월부터 ISA 납입·세제지원을 대폭 확대, 자본시장으로의 수요기반 확충에 ISA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을 확대
- 한국과 일본은 모두 자국 자본시장으로의 수요 확대 수단으로 ISA를 활용하기 위해 세제지원 혜택을 늘렸고 실제로 자본시장 투자인구 증가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
- 그러나 최근 양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절세계좌를 통한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
- 금번 정부의 ISA 개편을 계기로 유입된 개인투자자금이 국내 증시의 장기투자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

- 우리나라는 2016년 절세를 통한 국민 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(Individual Savings Account: ISA, 이하 ISA)를 도입하였으나, 2021년 중개형 ISA 도입 전까지는 그 실적이 매우 저조
  - 도입 첫째, ISA 가입자 수는 240만명에 달하며 '국민통장' 혹은 '만능통장'이라고 불렸으나 이후 신규 가입자가 미비한 상태에서 기존 가입자마저 이탈
    - 당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투자자금을 예·적금으로 운용되었으나 저금리 상황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효과는 미비
  - 대중의 관심이 떨어진 ISA는 2021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출시로 전환점을 맞음

- 2021년 2월 출시된 투자중개형(증권형) ISA는 기존 신탁형 ISA와 같이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나, 투자 가능 상품에 국내 상장주식이 포함
  - 중개형 ISA 도입 이후 ISA 가입이 늘어나자, 정부는 국민의 재산증식 및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ISA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영구화시킴<sup>1)</sup>
    - 당시 2023년부터 금투세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, 기존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이 유지될 경우 ISA가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태
    - 2021년 세계개편안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ISA 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의 양도·환매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<sup>2)</sup>
    - ISA 계좌의 비과세·분리과세 혜택은 금투세 기본공제<sup>3)</sup>와 별도로 적용 등
- **존폐 위기 상황에 놓인 ISA를 직접투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편 노력, 주식투자 인구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<sup>4)</sup>**
- 2024년 8월말 기준, 도입 8년 5개월만에 가입금액 30.2조원, 가입자 수는 564.6만 명을 기록
    - 이는 2021년 2월 중개형 ISA 도입 당시 대비 가입금액은 4.7배, 가입자 수는 2.9배 늘어난 규모
  - 특히 중개형 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20대 주식투자 인구 급증 등의 영향으로 중개형 ISA를 중심으로 가입이 크게 증가
    - 전체 가입자 중 중개형 ISA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3.1%에 달한 반면 신탁형·일임형 ISA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감소
    -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(39%), ETF(33%), 펀드 5%, 채권 7%, 파생결합증권 4% 등으로 운용
- **반면 유사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일본은 개인 보유 자산을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을 목표로 개인저축계좌(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: NISA, 이하 NISA)를 도입하였으며 금융투자상품만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**
- NISA는 투자 한도 내에서 금융상품 운용으로 얻은 수익(매매수익, 배당, 분배금 등)을 모두 비과세
    - 일본은 NISA 도입 이전 장기간 침체되었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10년간 주식 및 투자신탁펀드 양도차익 및 배당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율을 10%(기존 약 20%)로 인하하였음
    - 2014년 기간 만료를 앞두고, 급격한 시장 이탈 등을 우려하여 영국의 ISA를 모델로 NISA를 도입

1) 금융위원회, 2021. 7. 26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, 보도참고자료.

2)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금 등은 제외되어,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, 200만원 초과분은 9% 분리과세

3)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, 그 외 금투상품은 250만원

4) 금융투자협회, 2024. 9. 30, ISA 가입금액 30조원 돌파... 출시 후 8년 5개월만, 보도자료.

- 우리나라는 최초 도입시 절세에 초점을 두고, 예·적금 및 금융투자상품 모두를 계좌내에 편입하고 있으나 일본은 투자 패러다임 변화를 목적으로 애초에 금융투자상품만으로 운용
  - 개인의 보유 자산을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, 투자대상에서 예·적금은 제외

□ **비교적 빠르게 제도를 안착시킨 일본은 기시다 내각의 ‘새로운 자본주의 실현’ 정책 실행을 위해 2022년 일몰을 앞둔 NISA를 영구화시켰고, 이는 일본 증시 유동성을 크게 확대**

- 2021년 말 집권한 기시다 내각은 경제 선순환 관점에서 가계의 현금성자산 및 기업 유보금을 투자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, 이를 장려하기 위해 NISA를 획기적으로 개편
  - NISA는 도입 당시 비과세 기간은 최대 5년, 계좌 보유기간은 최대 10년(2023년)이었음
  - 연간 납입한도 상향, 계좌 내 상품 매도 후에도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고, 장기투자 장려를 위해 비과세 기간을 무기한으로 확대
- NISA를 통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가계 자산은 2014년부터 추진하는 금융투자 환경 개선의 일환인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성공에도 크게 기여
  - 금년부터 시행된 개정 NISA를 통해 유입된 자금의 46.2%(24.6월말 기준)가 일본 상장주식에 투자됨
  - 증시 유동성 확대는 그동안 우호적인 증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간 추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와 함께 2023년 일본 증시의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

□ **우리 정부도 내년 1월부터 ISA 납입·세제지원을 대폭 확대, 자본시장으로의 수요기반 확충에 ISA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을 크게 확대<sup>5)</sup>**

- 내년 1월 1일부터, 일반형 기준 납입한도가 연 2,000만원(5년간 1억원) → 4,000만원(5년간 2억원), 배당 및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 200만원 →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
  - 일반형 ISA<sup>6)</sup>의 경우 도입 이후 현재까지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동일(일반형 기준)하게 유지되었으나 내년부터 확대
  - 서민형·농어민형 ISA의<sup>7)</sup> 비과세 한도는 2018년 상향된 400만원(기존 250만원)에서 → 500만원으로 상향
- 국내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였고, 가입대상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포함한 15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
  - 국내투자형 ISA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

---

5) 기획재정부, 2024. 7. 25, 2024년 세법개정안, 보도자료.

6) ISA는 가입요건에 따라 일반형, 서민형, 농어민형으로 구분. 일반형은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만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~19세 미만 거주자가 가입대상

7) 일반형 가입대상 중 소득 요건에 따라 서민형(직전년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) 또는 농어민형(직전년도 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농어민)으로 구분되어 가입 가능

- 기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에는 가입 가능하게 하여, 이를 통해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국내 금융자산 투자로 유도하고자 함
-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2배인 1천만원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납입한도 내에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(9%) 적용 없이 14%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

〈표〉 개정 ISA 제도

종류	일반형	신탁형	중개형	국내투자형(신설)
	1인 1계좌만 가능			
연간 납입한도	기존 2,000만원 → 4,000만원으로 상향			4,000만원
총 납입한도	기존 1억원 → 2억원으로 상향			2억원
의무가입기간	3년			
가입대상	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한 15세 이상 거주자			15세 이상 거주자
비과세 한도	기존 200만원 → 500만원으로 상향			1,000만원
투자가능 상품	펀드, ETF, 예금성 상품, 상장형수익증권, 파생결합증권(ELS 등) 외		펀드, ETF, 국내상장주식, 국내채권, 리츠, 파생결합증권(ELS 등) 외	국내 상장주식, 국내 주식형펀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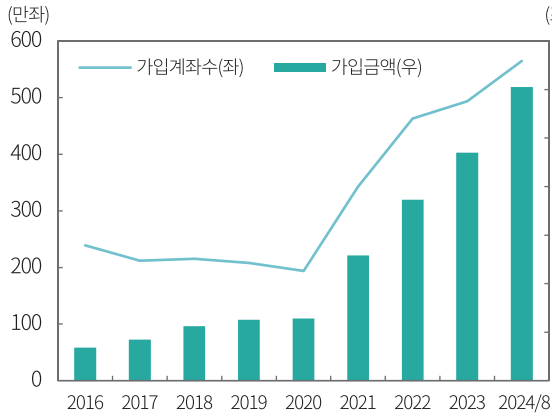
주 : 일반형을 기준으로 작성  
 자료: 금융위원회

□ 한국과 일본은 모두 자국 자본시장으로의 수요 확대 수단으로 ISA를 활용하기 위해 세제지원 혜택을 늘렸고 실제로 자본시장 투자인구 증가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

- 한국은 제도 도입 초기 은행의 예금성 상품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졌으나, '21년 중개형 ISA 도입으로 증권사를 중심으로 가입자수 및 가입금액이 급증
  - 투자중개형 도입 이후 20대 가입자 비중('20년말 6.4% → '24.8월 말 17%)이 크게 증가
- 일본은 2020년말부터 NISA 성장이 주춤한 상태였으나, 2024년 1월을 개정 NISA 도입으로 유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가계 자산의 분산 목표는 달성
  - 일반형(적립형 제외) 기준, 2023년 연중 유입금액이 30.7조엔에서 24년 1분기 41조엔, 2분기 45조엔이 유입<sup>8)</sup>
  - 24년 6월말 기준, 상품별 매입금액은 전분기대비 64% 증가하였으며, 대부분이 일본 상장주식(전체의 46.2%)과 투자신탁(49.5%)을 매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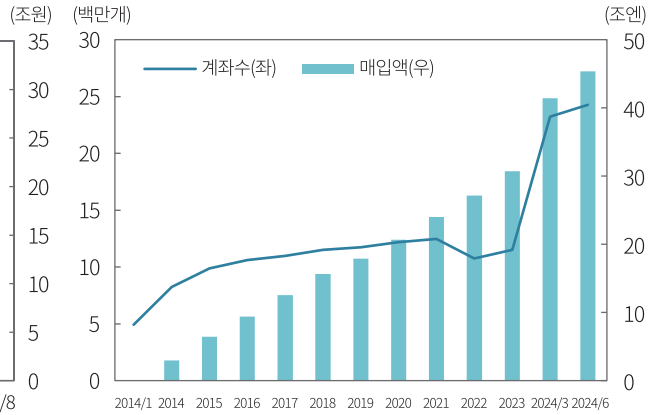
8) 일본금융청 NISA 이용상황조사(<https://www.fsa.go.jp/policy/nisa2/survey/>), 적립형 수치는 제외.

〈그림 1〉 우리나라 ISA 현황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〈그림 2〉 일본 NISA 현황



주 : 2023년까지는 일반형, 이후는 성장형  
자료: 일본 금융청

□ 그러나 최근 양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절세계좌를 통한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

— 양국 ISA 계좌에 유입된 자산의 상품별 매입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은 국내상장주식과 ETF가 중심, 일본은 국내상장주식과 투자펀드가 대다수를 차지함

- 한국은 중개형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과 ETF로 70% 이상이 운용되고 있으며, 일본은 성장투자형 계좌의 96%가 국내상장주식과 투자펀드로 운용

— 그러나, 개정 NISA 이후 유입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펀드 및 해외 ETF 매수로 집중

- 2024년 6월말 기준, NISA 성장투자형 상품별 매입액을 살펴보면, 전체 매입액 7.9조엔 중 상장주식이 3.7조엔(47.3%), 투자신탁이 3.9조엔(59.0%)로 대부분을 차지, 투자신탁의 대부분이 해외투자형 상품으로 알려짐
- 해외 ETF를 중심으로 ETF 매입이 전분기대비 거의 배 수준으로 증가

— 우리나라 또한 중개형 계좌에서 해외 ETF 등의 상장펀드 비중이 '22년말 4.4%에서 '24.8월말 25.9%로 5배 이상 증가<sup>9)</sup>

- 반면 중개형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의 비중은 동기간 53.7%에서 38.6%로 감소

□ 금번 정부의 ISA 개편을 계기로 유입된 개인투자자금이 국내 증시의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

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일반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에 따른 세제혜택 지원은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<sup>10)</sup>

- 특히, 세법 개정 취지에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·부동산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ISA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을 허용한다고 밝힘<sup>11)</sup>

9)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

10) 조특법 §91의 18, §129의 2

11) 기획재정부, 2024. 7. 25,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, 보도자료.

- 현재 추진중인 밸류업 프로그램 등 국내 증시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함께 국내 증시로 유입된 투자자금이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

선임연구원 김보영